

제42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4.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 o 소위원장(서범수) 인사 3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4
4. 현안 질의 4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현안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자로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에 권칠승 위원님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의 말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보임되어 오셨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반갑습니다.

충북의 보은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

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 또 윤건영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같이 호흡을 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준·김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겸 장관직무대행이, 어제인 29일 유재성 경찰청차장 겸 청장직무대행이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김민재 장관직무대행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간 차관보로서 위원님들을 뵈어 왔는데 이제는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금번 2차 추경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AI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방자치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행정안전부 소관 핵심 과제에서 국민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청장직무대행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한 유재성입니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해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질서 수호를 기본가치에 두어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찰은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악성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치안정책의 방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지난번에 인사드리지 못한 직원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제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안심사제2소위 및 청원심사소위 소위원장을 개선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서범수 간사님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달희 위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소위원장(서범수) 인사

○서범수 위원 저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적극 동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제2소위가 아마 행안부 재난본부 그리고 중앙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10월 29일 특조위 소관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아마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밀접한 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달희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시간이지만 오늘 APEC 관련한 회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4건의 청원 중 6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에 청원 6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0시14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관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4. 현안 질의

(10시15분)

○위원장 신정훈 참고로 아까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과 더불어서 현안 질의를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서범수 간사님.

○서범수 위원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축하를 드리고……

오늘 임명받으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따끈따끈하시겠네.

경찰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에 아마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0일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20일 날. 그래서 언론에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나 주요 현안보고를 했다’, 기자간담회 할 때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 업무보고의 내용에 무엇이 담겼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좀 달라고 하니 안 주고 있어요. 왜 안 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공약과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서범수 위원** 그래서 공약과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경찰이라는 업무 자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대상자인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어떤 비밀이라든지 은밀하게 해야 될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경찰 업무는.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이 보고서를 안 내주느냐.

보고서 내주십시오,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청 공약과제 이행 사항을 보고했고……

○**서범수 위원** 그래, 그 내용 안에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정과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논의되는 내용이라도 좀 달라고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게 논의가 마무리되면 아마 국정과제로 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여하튼 그 업무보고 내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최근에 공공시설이나 노사분규라든지 경비대책에 실패한 사례가 10년 단위 안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감찰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자료를 리스트업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2015년도·2016년도에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있어서 우리가 뚫려 가지고 그때 감찰조사를 해서 경찰이 엄청난 징계를 먹고 한 자료가 있고요, 제 기억에.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하고 조치한 사항들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아니, 저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체토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는 병행해서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우선 그러면 몇 분이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입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신데요. 정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 위원장님, 앞서는 손든 사람 먼저 하게 해 주신다고 해 놓고 갑자기 바꾸시면……

○서범수 위원 그때그때……

○위성곤 위원 저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서범수 간사님 하고 바로 그렇게……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여당이 돼서 처음으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책임감 또한 매우 느껴집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쓰시지요.

○위성곤 위원 책임감을 갖고 정부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 관련해서 민생경기,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경기가 매우 어렵고 민생경제가 무너져서 사실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점검을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확인했더니 6월 27일 현재 4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서 됐는데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실제 노력의 성과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보통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에 편성되어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고 일단 관련되어진 소규모 SOC 사업이라든가 집행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들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조속히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그 발주되어진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기를 돌게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방에서 신속하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 비상계엄 여파와 또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신속 추진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자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서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과 협조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계획을 작성해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차관님, 차관 임명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추경이 짜여졌잖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데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또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간단하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21년도에도 큰 틀에서 민생지원금이 코로나 시기에 됐었는데요. 그때는 당초 전 국민 대상은 아니었고요. 80% 정도였는데 20년도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으로 되었고 그때는 개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었고요. 21년도에는 전 국민은 아니고 한 80% 정도까지여서 취약계층 위주였는데요. 올해는 소득별 맞춤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 드리고 또 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아주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2단계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방안으로 해서 선별 작업을 1단계 지급기간 동안 거쳐서 2단계에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 못지않게, 어떤 분들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요. 또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이 아닌 다른 부처, 문체부나 중기부에서도 민생지원 대책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타이밍과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추경 통과되고 나서 두 달 지나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효과 면이나 타이밍에서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초 그때 여러 민생쿠폰이나 그런 것이 적시에 사용이 되려면 결국, 이번 추경이 7월 초에 통과하게 되면 2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번 집행을 했던 경험을 두 번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통과 확정해 주시는 그다음 날 집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브리핑해서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또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같이 그 선택 수단 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3년 동안 국고보조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와의 매칭 이게 자체 부담이 커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 발행 자체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생쿠폰이나 여러 가지를 집행할 때도 집행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것을 지자체 탓만 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독려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대응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올해 본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없었고요. 1차 추경을 통해서 4000억 원이 확보돼서 지방에 교부가 되었고요. 또 2차 지원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한 3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구요.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정책의 취지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국가 위기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서 가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 협조 체계를 구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먼저 차관님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으로 중요한 역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이번에는 소득 상위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 상위 10%를 지급하는 결정 기준은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게 복잡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급이 시작이 되면 2차 지급 시기에 상위 10%로 판정이 돼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선별 기준을 잡고 이의신청 처리하고 이게 다 행정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먼저 선별해서, 이렇게 행정비용 많이 들고 사회적비용 많이 들고 사회통합 저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액을 지급하고 그 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라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비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상황에 따라서, 올해 소득액에 따라서 환수액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 사항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선별 시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집행의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과세소득화, 보편 지급 후 과세소득화 해서 선별 소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제는 새 정부 출범하고 신속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과거의 전례를 따라 서…… 채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한 60일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더 단축시킬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주신 것도 한번 고민해서 차기에 된다거나 이럴 때 장단점을 잘 비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제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건의하시면 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취임해서 만든 지자체 현금성 복지 지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제가 지자체 예산 자료를 가지고 황당한 통계를 하나 뽑아 왔는데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157개 시군구에 2023년 현금성 복지 지출이 2024년 이 되어서는 3.8배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에는 잘 몰라서 통계목 301-03으로 편성을 해 놔는데 2024년에 와서는 이 페널티 안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로 많으면 10억 원 가까이 보통교부세가 삭감당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제도가 전혀 수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폐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재정 운용상의 지자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저는 이게 이상민 장관이 만들어 놓고 간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제도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경찰청 차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탄 교제 살인사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게 피해자가 아홉 차례 신고하고 600쪽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평 아내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가족이 보복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했는데 경찰은 중재할 생각은 없냐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게 된 것이 다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동탄 사건 같은 경우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옹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동탄 사건 같은 경우는 서장을 비롯한 몇몇 경찰들만 직권 조치가 된 상태이고 부평 사건은 감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 부평 사건 명확하게 감찰 진행하고 각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 중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부평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족이 보복 우려를 호소하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중재할 생각은 없나라는 말만 반복을 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 교제폭력 살인사건,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옹혜인 위원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해당 경찰관들을 일벌백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경찰 내부에서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패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해야 합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에 나서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복 살인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즉시 담당 경찰관의 인신구속 조치 신청을 의무화하는 매뉴얼부터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관계성 범죄로 볼 수 있는 게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교제폭력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하여튼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인신구속 신청 반드시 의무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덕흠 위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를 위해서 선거사무소 또 연락소를 두게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한, 정당사무를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그리고 정당선거사무소를 구분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는 경우에 정당의 업무 중에서 구별이 될 수 있어서 사무소와 연락소 자체를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89조를 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사무소나 또 연락소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하는 선거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사기관이라는 것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위원 기구라고 하면 피켓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요, 조직을 여기서 말하는 거지요, 조직.

○박덕흠 위원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켓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피켓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소적인 개념이나……

○박덕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이라 하면 정당사무소 운동원이 아니라 후보자의 운동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당사무소에 가서 피켓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피켓으로 말씀하셨는데 조직 또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그 정당사무소에 가서 출퇴근을 거기서 하고 피켓 같은 것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다시 들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러 가고 할 때에 정당사무소에서 해도 무방하냐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당사무소에서……

○박덕흠 위원 선거사무실이 아닌 정당사무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기엔 선거운동으로 쓰는, 말하자면 피켓 등 이런 것을 보관하고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박덕흠 위원 그리고 출퇴근을 거기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것 즉답이 안 된다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정당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원들이 거기서 들락거리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것이 무방하다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후보자들한테도 공지를 해 줘야지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용, 그것을 시설로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되면 지금 89조에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선거운동원들이 머무르는 장소, 휴식하는 장소까지 선거사무소·연락소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즉답을 안 드리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조사,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 내용이 되면 그것을 여러 후보자들한테도……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정당사무실에 가서도 그런 쪽으로 운동원들이 가서 쉴 수 있다 또 출퇴근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맞다 하면 그 내용을 판단해서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용은 지금 드는 사안인데요.

○박덕흠 위원 그것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확실하게 저희들이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마치셨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다음 박수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코로나 때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 진작 효과, 소비 효과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갔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정확한 연구 결과 같은 것을 봐도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박수민 위원 기간을, 소비 진작 효과를 조세분석원이나 조세연구원이나 등에서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보고 있거든요, 연구보고서상에 보면.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확인하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만약 한두 달짜리 소비 진작 효과가 코로나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복된다면……

이번에 10조 원이지요, 소비쿠폰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10조 2000억 원이고요. 지방까지 하면 13조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달짜리라면 일이 개월 후의 소비 진작은 어떻게 끝어가실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은 여러 기간별로 성과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민 위원 그 기간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저는 일이 개월짜리 조세재정연구원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확인하시고 한두 달짜리라면 만약 한두 달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질문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이번 예산을 보시면 위원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요 아까 중기부라든지 문체부에서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이번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시너지 효과 다 합쳐서 경제성장률에 몇 % 자극 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GDP 성장률의 몇 % 정도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이번 전체 추정안 그 시너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1%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0.5% 내외로 저희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은 0.1~0.2%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한 0.2% 정도, 죄송합니다.

○박수민 위원 뭐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오시나요?

10조 원을 쓰시려면 국가부채 아닙니까. 이게 몇 달에 가는 효과인지, 경제성장률에 몇 %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한두 달이 끝나면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 부분은 더 하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경제성장률 이런 부분보다도요 어려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타격을 받는 부분, 서민들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포커스를 둔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결정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취약한 쪽을 골라서 소비쿠폰을 쓴다고 예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아닙니다. 상품권 등록된 업체라든지 그 부분……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쿠폰이 나가는데 지금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야 하는데 그러면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걸로 보시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로 지금……

○박수민 위원 그러면 30억 원 이하 중에서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하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님, 제도 자체가 30억으로 해서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더 어려운 자영업자를……

○박수민 위원 목적에 동의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도와야 하고 소비 진작해야 하는데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정합성에 대해서 답을 못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경기를 살리는 진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를 회복시키는, 차관님 생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일단 수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진작한다거나 이런 부분 또 설비시설 투자, 소비 이런 쪽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살아나려면 일단 이자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점점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돈이 돕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는데 그 돈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라든지 미래 대비라든지 이런 데 재정을 타깃하는 겁니다. 이걸 폴리시 믹스(policy mix)라고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돌리고 그게 가지 않는, 돈을 돌려도 구조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또 구조적으로 규제나 제도의 설계가 그 돈의 흐름을 막고 있으면 그걸 고쳐 주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기반해서 소비를 진짜 어떻게 살릴지,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울지 행안부 차원의 고민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유재성 대행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경찰국 폐지에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그리고 오늘 경찰청에서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당하고 징계당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 회복하겠다는 보도자

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경찰국 추진 총경회의 관련해서 참석자들 일부 인사 불이익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정춘생 위원** 징계 취소도 가능하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징계 취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위법한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경회의가 소집됐던 거고 거기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한 건 저는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차원에서 말뿐인 명예 회복이 아니고요.

저는 행안부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경찰국 설치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경찰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명예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총경회의에 인사 불이익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더 이상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행안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행안부 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경찰국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말씀 들으신 것처럼 폐지할 예정이고요. 경찰청 제도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그다음에 경찰의 중립성 방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는 보겠는데요.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법령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감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고요. 저는 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야 이런 일들이 정권이 바뀔에 따라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14만 경찰들이 자신들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경회의를 통해서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 문제점, 위법성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벌을 받고 인사 불이익당한 건 경찰로서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명예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명확한 기구가 설치돼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해서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그래야지 저는 명확한 명예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잘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명예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질의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산불 이재민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 이재민 피해자들에 대해서 임시 조립식 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경북 산불 피해자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홍성의 이재민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겨울 동안인데 51만 9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가 동파가 돼서 수리비가 18만 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임시주택 만들어서 주거해라 이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1년이고요. 원할 시에 추가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1년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합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 안에 자신의 집을 짓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면 그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구호기관, 재해구호협회라든지 구호기관에서 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맞는데요. 지자체에서 또 보급, 제공해 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계실 수가 있고요.

○정춘생 위원 원하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본인이 그걸 원하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권을 갖고? 그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전기요금은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실 다른 지역은 보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

○정춘생 위원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르게 썼을 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확인을 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산사태 지역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산불 지역이라 나무들이 다 없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순찰대라든지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방비 20%하고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관님, 8 대 2로 매칭하는 것 관련해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하고도 했고 시도 단위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저한테 처음에 부임 인사 와서 이 부분을 제가 꺼냈을 때 차관님은 분명히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PPT 돌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기사 난 것들입니다. 광역지자체, 광역단체뿐만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전 협의가 일절 없었고 지방정부에 재정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좀 다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지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제적으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무너뜨리는, 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올해 1분기입니다. 국세 수입 재추계를 했을 때 1차 추정보다 얼마 정도 감소가 됐지요? 아시지요? 10조 300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내용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감액될 건데 이 점도 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아닙니다. 저 추경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국세를 9조 정도 감액해서 한 1.7조 정도의 교부세를 감액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성권 위원 그건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래서 교부세 피해가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교부세는 줄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빚내 가지고 또 감당해야 될 형편일 겁니다.

지방채 발행된, 저기 표를 보면 나오고 있지만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이 2조 원입니다. 작년 1년 전체를 합쳐서 보면 8331억 원인데 1분기만 보더라도 134%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2조 9000억 원이 또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차관님께서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이성권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방정부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 보면 한 48.6% 정도 되고, 그렇지요? 이것도 아실 거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평균을 내 보면.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 지방채는 발행을 많이 해서 빚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지금 매칭 20%를 강제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은 제가 보기로는 갈수록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세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표 나오는 것처럼 지난해 3·4분기 흐름과 비교해 보면, 올해 1분기 GRDP를 보면…… 이게 권역별로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면. 큰 권역별로 보면 GRDP가 1%에서 0%대로 하락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단지인 울산이나 여수, 포항을 보더라도 지금 폐쇄되는 제조업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 들고 돈 나올 데는 없고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20%의 지방비 매칭을 시켜 버리면 삼중고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걸 방증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건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박수민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재정 승수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그리고 지방재정을 파탄을 내 놓으면……

저도 1분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지방재정을 파탄을 내 놓으면 지방정부가 끌고 가기 힘듭니다. 부산만 보면요, 지금 이미 1차 추경에서 수치를 보면 3월에 3600억을, 그리고 2차 추경을 6월 달에 했는데 5600억을 하는 추경을 통과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시 부산에 할당되는 몫을 합치면 1조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방정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 다릅니다, 인구 특성이나 지역 경제 하고 보면. 부산하고 강원은 세입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부산이 두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보면 지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입 규모가 비슷하다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이 강원에 비해서 두 배 넘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켜 버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 부분이 빠져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 민생 회복이나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별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 끝나셨습니까?

○이성권 위원 예.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올해 들어와서 충북도립대의 김용수 전 총장이 국비 지원 예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초호화 워크숍을 다녀와서 경찰 수사 중이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서 이에 대해서 밝히고자 수사를 강력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선과 명태균과 김영환의 관계 그리고 충북도립대 전 총장인 김용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은 제17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에 인접한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 물론 김영환도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은 그룹에서 출마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서로 잘 알고 지냈지요, 이미 17대 때. 그리고 2009년 김영선이 국회 정부위원장 시절에 은행권과 관련된 유력자들의 모임인 글로벌파이낸셜포럼 자문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당시에 김용수 총장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함께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막역한 사이지요, 직접적으로 은행권에 있는 인사들을 관리하니까.

그리고 김영환 지사는 고양시에서 2020년 총선 출마를 하고 당시에 김용수 총장이 지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 역시 그와 관련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김영환 지사는 결국 22년 충청도지사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은 2022년 충청도지사에 당선된 김영환 지사가 2022년 10월에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자가 모두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탈락을 하자마자 다시 이듬해 4월 충북도립대 총장 재공모를 해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실상 응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수 총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용수 총장이 이런 국비 지원 예산으로 함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가족들과 함께 진행을 해서 총장도 그만두게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충북도립대 재공모 시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명태균 특검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 측에서는 김용수 총장 수사 이후에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시에 특검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특검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충북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그 앞뒤 정황상 여러 가지 의혹들과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왜 김영환이 충청도지사로 오지?’, 충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떠나서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김영환이 왜 충청북도에 오는가가 가장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막 증폭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2022년에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2021년에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김영환이 활동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영환이 충청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 역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고향이라고 제대로 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타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나오고 했던 사람이 왜 충북도에 갑자기 오게 됐는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유재성 직무대행님께서서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직접 수사나 특검과 공조해서 진실 규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특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협조를……

○이광희 위원 그리고 경찰 수사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지요, 이와 관련된 수사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

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하고 있다면 국수본 차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1분만 주시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출판문화협회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서울국제도서전 방문했다고 항의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 누락 관련해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문화협회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걸 올해 거나 내년 거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김건희 방문 때 항의 시위 한 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 부분도 제가……

○이광희 위원 이것도 잘 모르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광희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요, 종로서에서 지금 공개고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해 줘야 이 단체가, 지금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대한민국에서 출판문화를 이끌고 한강 작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도 받고 하는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 부평 살인사건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잘 모르겠다 하셨지요? 내용을 잘 모른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제가……

○서범수 위원 전임이 어디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전임 형사국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서범수 위원 그래도 이게 이슈화됐고 문제가 생겼고 살인사건인데도 그냥 넘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범수 위원 형사국장이라는 분이 이 내용도 몰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다 보고를 받는데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건들을 보고 받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았고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송미령 농림부장관 아시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전 정부 때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다 하고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에 대해서 유임이 됐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농정과 관련해서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다만 정권이 바뀌어서 유임을 시켜 주니 그 농망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새로운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리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경찰국 폐지하신다면서요? 동의하신다면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뭐가 바뀌었기에? 경찰과 관련되는 환경이 뭐가 바뀌었기에 전임 정부 때는 경찰국 설립하는 데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찰국을 폐지한다고 하니 적극 동참하겠다는 거 합니까. 뭐가 바뀌었기에?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국 설치하는 지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확정됐던 사항.....

○서범수 위원 아니, 그래요. 경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적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경찰국 설치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동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오케이, 동참합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때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은 명예 회복을 해 주시겠대요, 명예 회복을.

차장님,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차장님이나 그 뒤에, 총경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계급들은 이분들을 밟고 승진하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국 그.....

○서범수 위원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니 경쟁은 떨어지고 오히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었던 것 아니에요, 차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들? 똑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명예 회복을 시켜 준다는데 명예 회복을 어떻게 시켜 줄

것이나고 물어보니까 늘상 차장님은 지금 ‘명예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검토합니까? 살펴보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명예 회복 방안은 일단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내용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총경……

○서범수 위원 언론 보도는 제가 봤고요, 보도한 건 제가 봤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 경찰이, 그 큰 집단이 너무 바람에 휘둘린다, 너무 바람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안부차관님, 이것 경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국 폐지했던 부분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잘못은 전부 경찰한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했지요’ 그건 아니지요. 행안부에서도 자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분만 더……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의 잘못이 뭐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당시 경찰에서는 미리 예견을 잘……

○서범수 위원 잠시만, 정보 판단 미스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보 판단 미스.

실컷 19시까지 44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가 21시부터는 14개 기동대, 쪽 줄였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 거지요? 정보 판단 미스라고 보지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니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서……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때 정권 공백기인지 혼란기인지는 몰라도 경찰이 너무 나이브하게 넘어간다, 이건……

서장들 경고 정도, 하나밖에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경찰이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경찰이 그랬습니까? 이 공공시설, 특히 법원에 난입했는데 그 책임자 그냥 경고 하나 먹고 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당시에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아까 내가 요청했지요?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얼마나 형평성 있게 해 봤는지 한번 보자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차관님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선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전 국민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2020년·2021년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대략 한 66%, 70% 내외인데요.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상하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다양한 지급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 당시와 유사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추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당시, PPT를 보시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수수료로 카드사가 한 20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카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비한 게 있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은 예를 들어 시스템 운용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용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차등·우대 수수료 적용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부처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례를 보면 수수료 면제라든지 인하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설명 자료 같은 데 보면 행안부는 오히려 카드사의 부대비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카드사 이익을 챙기려고 전 국민 소비쿠폰 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소득층하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쭙게요.

현금도 지급 수단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윤건영 위원**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금을 지급 수단으로 하는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알겠는데요. 검토하셔야지요, 이 부분도.

그리고 소비쿠폰 유효기간을 어떻게 지급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난 20년도에 4개월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사용 가맹점 관련해서도 연 매출 30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런 부분들 오늘 세부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현안질의라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차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12월 3일 날 불법 내란 관련해서 국무회의,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면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이 아직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났잖아요. 행안부가 이런 거 왜 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12월 3일 회의록 없는 거 말씀이십니까?

○**윤건영 위원** 예. 국무회의 차수로 인정돼 있고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바로바로 처리하셔야지요, 이런 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윤건영 위원** 그리고 차관님하고 경찰청 차장님, 공히 말씀드리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다 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맞는 기관장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산마을입니다.

제가 경비국장님하고도 상의한 부분인데요. 2개의 차선인데 1개의 차선을 아예 잡고 1년 365일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집회입니까?

다음, 영상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1개의 차선을 잡고 사람들을 아예 못 다니게 해요. 그리고 저기에 인형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지요? 집회를 티 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으면 1인 시위니까 인형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집회인 것마냥 저렇게 흉내 내고 있어요.

차장님, 다음 거 봐 주세요.

일장기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스라엘 국기, 일장기를 걸어 놓고 있어요.

제가 경비국장께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상황이에요. 이게 멸절한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기 인형 세워 놓은 게 집회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PPT 보시면, ‘1인 시위가 아니다’. 그리고 1개의 차선을 잡아 놓고 365일 저렇게 하는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집시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가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쪽에 대해서는 집회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왜 이런 건 봐줍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형평에 맞게 집시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대한민국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돼요. 이것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차

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원래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서범수 위원님 이야기를, 질의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에서 경찰국 좋아서 설치했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간부 중에서 경찰국 설치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사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니, 힘으로 찍어 눌러 가지고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못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찰을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고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무슨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런 게 지금 가능키나 한 겁니까? 경찰국 설치도 국기문란이다 그 래 가지고 경찰을 겁박한 게 누구입니까? 윤석열 아십니까? 거기다가 치안정감 승진 대 상자 6명 장관실로 불러 가지고 개별 면접하면서 줄 세우기 하고 길들이기 하고 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관들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지금은 야당 위원이지요. 윤석열 이 내란 하고 계엄 할 때, 여러분들 헌법기관이잖아요, 뭐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왜 경 찰관들한테 그때는 경찰국 설치하고 할 때 아무 반대도 못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좌천 당한 사람들을 던고 일어나 가지고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익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 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할 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이 명시적으로 누구 한 분이라도 똑똑하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 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경찰관들 뭐라고 나무란다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힘으로 경찰을 찍어 눌렀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들이…… 아니, 반대한 경찰관들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국 반대한 총경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사로 불이익을 받았으면 그걸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건데, 잘 못된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경찰을 어떻게 비난하고 폄하하 는 그런 발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도 경찰에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후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유재성 차장님, 윤건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경찰답게 소신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저희들이 적극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물론 내란과 계엄에 일부 가담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진압 과정에서 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란 잔당 소탕하고 또 수사할 일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다시 정상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저한테 주셔야지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 먼저 박수민 위원님 아까 추가질문하신다 그러셨지요?

○박수민 위원 먼저 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러실랍니까?

○서범수 위원 제 발언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찰국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그러면 경찰이 소신 있게 과거에 경찰국을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를 해 주라. 그 당시에 경찰국을 만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경찰국을 폐지하자니 동참한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힘으로 눌러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경찰국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비상계엄이 어떻고 어떻고 한 사람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보고, 우리보고?

○이상식 위원 한 사람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니, 반대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식 위원 표결하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서범수 위원 그 표결이 정확하게 의사표현이지요, 그게. 더 이상 의사표현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상식 위원 나중에……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이……

○이상식 위원 아니,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지요, 저는.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신상발언을……

○서범수 위원 경찰이 좀 더 소신 있게 좀 중심을 잡고 해 달라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뭘 하더라도 차장님이 오늘 임명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뭘가

준비를 하고 나오셔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회에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경찰에서.

국회를 오면 시간 때우기 하는 장소로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도, 저도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이 경찰답게 중심을 가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좀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요. 두 분이서 너무 개인 신상발언으로…… 두서가 없어서 정리를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채현일 위원 추가질의 가능한가요?

○위원장 신정훈 예, 우선 박수민 위원님하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세 분…… 세 분은 3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행안부차관님, 지금 소상공인 도와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취약계층 도와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금번 추경 30조 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돕는 사업이 뭐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예, 10조 원짜리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소상공인 도와야 되고 취약계층 도와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10조 원짜리 소비쿠폰인데 지금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몇 %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거의 뭐…… 되게 낮은데……

○박수민 위원 수수께끼 안 하겠습니다. 0.8%인데 만약, 아까 처음에는 이번에 다 더해서 시너지 효과로 한 1%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경제성장률 올해 예측치가 지금 한국은행이 0.8%인데 만약 30조 원 추경 해 가지고 1% 늘어나 가지고 1.8% 되면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까지 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건 제가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0.2%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정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 10조 원짜리 국가채무 사업을 쓰고 오면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분석이 전제돼야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교훈이 분석돼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수민 위원 제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세연구원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에서 두 달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분석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순환 시너지, 말만 있습니다. 10조 원 국가채무 숫자는 있는데 나머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합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존의 경제효과 분석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이 10조 원의 민생회복금을 쓰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경제효과 분석이 준비돼 있습니까, 사업 세부항목에 그게 없던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사업운영비 550억 중에 보시면 연구용역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반드시 분석하십시오. BC카드까지 해서 이미 신문기사까지 다 난 게 있습니다, 과거 효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10조 원을 쓰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 분석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철저히 경제효과 분석 준비해 주시고요, 그 결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해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금방 자료를 한번 봤는데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이라고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한 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구소득과 지출이 4.4%, 8.1% 감소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가구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경제의 충격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취약 집단이 많이 속한 2분위 가구에서 가장 컸다. 무엇보다도 저소득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지출이 고르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활성화 모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제출했고요.

차관님, 지금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일본 이시바 내각에서 최근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2만 엔, 총 3조 엔가량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하겠다는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것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일본에서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난 4월 달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강력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러한 민생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소비쿠폰 한 것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이성권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신정훈** 아, 죄송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추가질문과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야당 되고 난 다음에 첫 질의 날인데 빼 버리고…… 농담이고요.

아까 본질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우리 차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거쳐야 될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에 부분적 흠결이 있어도 밀고 가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흠결이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방정부는 그냥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구조 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또 사전 협의들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사들처럼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방 본연의 사무라기보다는 대상의 포괄성이나 규모 또 시스템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안부는 사실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제일 많이 알고 그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또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비율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차관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가재정법상 절차상 흠결은 저희가 볼 때는 당초 예산을 할 때 보조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방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방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아마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의견은 수렴했는데 지금처럼 지방 비율을, 지원 비율을 낮춰 달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관계 부처 TF라든지 가는 부분에서 비율 조정을 조금 더, 지방의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고요. 관점을 약간만 바꾼다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렵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8 대 2 구조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주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 좀 제안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전에 이성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들에게 또 지방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를 행안부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변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자세 전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난 정부 때 지방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이제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재정 부담이, 지방의 사정 또 지방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정책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행안부만큼은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 있게 정책을 설계해 주시라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대체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선택하고 지역의 소비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 한도랑 보유한도를 200만 원까지 각각 늘리게끔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카드 사용 시에 포인트라든가 캐시백 등 다양한 부가혜택이 제공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에 그런 혜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페이백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부담을 5%로 딱 고정해서 했는데 물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국비는 차등 부담하고 지방비는 고정해서 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생각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률을 그 지역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다 15%까지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이 일괄 5%고 인구감소지역은 정부가 할인율을 1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1차 추경에 지방비 부담이 있고 2차 추경에 또 새로운 지방비 부담, 거기에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까지 생각해 보면 이 문제, 지방비 부담을 5%로 딱 고정해 놓는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매번 이야기되는 건데요. 선거 때의 플래카드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다 아니면 부당한 선거, 사실의 왜곡이라든가 또 이 해당자들의 명예 회복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래카드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 이런 건데요.

선거 때 정당에게 부여된, 어찌 보면 선거기간 동안의 특별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지금 충남 부여 쪽에서 저에게 보내온 국민대통합당이 게시한 플래카드를 한번 읽어 드리면요,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 구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예요.

국민대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정당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당 개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정확하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선거 현수막과 관련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 부분까지 해서 위원장님께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까지는, 그런 방향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라든가 악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보장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이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개선안을 마련하면 양당 간사에게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당은 등록된 정당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런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정당의 이름으로 나붙는 이런 것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도용되거나 명의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정치적 의사표현이 좀 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정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박수민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상 아홉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권칠승 김성희 모경중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출장 위원(1인)

주호영

○청가 위원(2인)

고동진 이달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정책기획관 임철언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 김기영

대통령기록관

관장 이동혁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우

기획조정관 도준수

경비국장 임정주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감사관 고정삼

소방청

청장 허석곤

119대응국장 박근오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기획조정관 오승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1국장 윤재수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